

☑ 창닫기

대구시의회·의회사무처 봉사단, 쪽방 생활인에 물품 전달



대구시의회는 5일 폭염 속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쪽방 생활인들을 방문, 과일과 하절기 속옷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5일 폭염 속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쪽방 생활인들을 찾아 과일과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이동희 의장과 류규하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봉사단 일행은 서구 평리동 대구 쪽방 상담소인 '희망 드림센터'를 찾았다. 이 의장은 장민철 소장과 상담직원들로부터 대구시의 쪽방 생활인 실태와 상담소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동희 의장 일행은 또 중구 태평로 일원의 쪽방 2곳도 방문했다. 이 의장은 거주자들을 일일이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준비해간 수박, 라면 등 식료품과 모기약, 부채, 수건, 하절기 속옷 등 무더위용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위로했다.

이동희 의장은 "앞으로 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흑서기 쪽방 생활인 등 특별보호대책'에서도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15년 08월 06일

Copyright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maeil@imaeil.com for more information